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군산 · 자랑스러운 군산 만들 것

Q. 먼저 당선 소감과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마 초기 제 지지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시작이었지만 시민들께서는 화려한 경력보다 진심과 실천 의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74.97%라는 압도적인 지지는 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군산을 반드시 바꿔달라는 시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보내주시는 기대와 신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믿음에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Q. 이번 선거에서 군산시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이번 선거는 단순한 시장 선출이 아니라 군산시 행정권력 교체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지난 시정에 대한 평가를 넘어 앞으로의 군산 4년 나아가 군산의 미래를 선택하셨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새만금의 기회를 군산의 성장으로 연결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결과를 승리가 아니라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보내주시는 기대와 신뢰를 군산의 변화와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입니다.

Q. 군산 경제 침체가 오랫동안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혀왔습니다. 당선인께서 생각하는 군산 경제 회복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 군산 경제 회복의 핵심은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산업구조 혁신입니다.

지금 군산은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와 새만금 첨단산업단지 조성, 군산조선소 재도약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 유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시민 소득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Q. 민선 9기 군산시장의 최우선 과제 세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 첫 번째는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시민의 삶은 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자와 기업 일자리가 살아야 도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AI와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산업 등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해 군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 중심의 행정입니다. 행정의 기준은 시민이어야 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신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민선 9기 군

산시장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민선 9기 군산시장의 핵심 방향입니다.

Q. 새만금은 군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입니다. 새만금 개발을 군산 발전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까?

- 새만금은 군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성장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이 진행되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새만금의 성과가 지역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새만금의 성공이 곧 군산의 성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체된 군산 지역경제 회복

새만금의 기회, 성장으로 연결

시민들께 신뢰받는 행정 구축

목표는 '시민 체감 지역 성장'

Q. 첨단산업 유치 전략은 무엇입니까?

- 첨단산업 유치의 출발점은 신재생에너지 수도 새만금의 완성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산업, 피지컬 AI 로봇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이 쉽게 갖기 어려운 경쟁력입니다.

저는 새만금을 RE100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수도로 완성하고, 그 위에 AI와 첨단제조업,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집중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Q.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정책은 무엇입니까?

-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 없이 청년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과 주거 지원, 문화·여가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기회를 찾아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군산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특례보증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특히 공공배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은 효과와 효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사업 자체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있는 정책은 확대하고, 효과가 부족한 정책은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Q.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원도심 문제는 단순한 도시재생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와 상권, 관광과 문화, 청년 창업이 함께 살아가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대문화유산과 개항문화 자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공간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해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원도심을 만들겠습니다.

Q.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군산은 역사와 문화, 바다가 공존하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개항문화와 근대역사, 고군산군도와 해양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도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소비하며 다시 찾는 도시로 발전시켜 관광을 지역경제의 중요한 성장축으로 만들겠습니다.

Q. 중앙정치 경험이 군산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저는 늘 자신을 '군산의 중앙통로'라고 말

씀드려 왔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중앙정부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는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군산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와 국가사업 유치, 기업 투자 유치 과정에서 그 경험과 네트워크를 군산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Q.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 구상은?

-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성과를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새만금과 현대차 투자, 군산조선소 재도약은 군산의 혼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긴밀히 협력해 임기 안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Q. 공직사회에 비하는 점과 조직 운영 철학은 무엇입니까?

- 행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공직자는 규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결과로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께 신뢰받는 유능한 행정을 구축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Q.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한 이유도 시민과 행정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시민 허락과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장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Q. 군산시가 앞으로 4년 동안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 시민들이 '군산이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차 투자 현실화와 첨단산업 유치, 군산조선소 재도약을 통해 군산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년 뒤에는 시민들께서 군산의 변화와 성과를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군산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는 군산, 자랑스러운 군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밝은 정치와 기득권에 기대지 않고 오직 시민의 이익과 군산의 미래만 바라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믿음에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만호 기자 · 군산=김만호기자

